



(...10페이지에 이어)
이나 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도시를 유지하는 분야에서는 흑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종 문제에 정통한 니콜 한나-존스 뉴욕타임스 매거진 기자는 흑인의 자차(自車) 비중과 주택의 자가 보유 비중이 낮은 것에서 원인을 찾는다.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건 어렵다. 단독주택이 아

나라 타인과 접촉이 많은 집합 주택에 사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진 못해도 도출되는 불균형을 파악해 위기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었다. 그런 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의 대처는 지지부진했다. 가장 기초 작업인 인종 불균형에 관한 데이터를 모으는

일에 연방정부는 관심이 없었다. 이렇다 보니 주별로 집계 이뤄져야 했고 취합 속도도 느렸다. 여전히 공개하지 않는 곳까지 생기면서 일은 더욱 복잡해졌다. 그러면서 APM리서치랩 같은 곳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됐다. 앤디 에그버트 APM리서치랩 수석연구원은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전국적인 통계를 우리 같은 독립된 단체

▲ 지난 6월 2일 LA의 한 시위 청년이 경찰에게 꽃을 건네고 있다.

가 맡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말했다. 국가 수준에서 데이터가 없다는 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는 뜻과 같다. 정부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했다.

코로나19와 경찰의 폭력

이 만든 합작품

그러는 사이 흑인들이 진단검사와 질병 치료 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증거는 계속 나왔다. 바이오기업인 '루빅스라이프사이언스'는 지능형 데이터 네트워크를 활용해 7개 주 코로나19 환자 2만 7344명의 청구 정보를 분석했다. 여기서 얻은 결론은 흑인 환자들이 코로나19를 치료하거나 검사받을 확률이 백인에 비해 6배나 낮다는 것이었다.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사례들이 폭로됐는데 대표적인 게 선별진료소의 위치가 백인 인구 밀집 지역에 편중된 경우다. 지난 5월 27일 미 공영방송 NPR은 텍사스주를 조사해 "6개의 대도시 중 4개 도시의 선별진료소가 백인 밀집 지역에 주로 있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검사도 불평등하게 이뤄졌다. 인터넷 매체 vox는 "일리노이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19 사망자의 37%가 흑인이지만 4월 23일 기준으로 전체 흑인 주민 중 13%만이 검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의료 불평등에 더해 팬데믹으로 잃은 임금은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줬다. 지난 6월 1일 갤럽은 "저임금, 블루칼라, 저학력 노동자들이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층(연소득 3만6000달러 미만) 가구 노동자의 95%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해고(37%)되거나 소득 손실(58%)을 겪었다. 2018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ACS)' 자료에 따르면 백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6만 7937달러, 흑인 가구의 중간소득은 4만1511달러였다. 갤럽이 말하는 저소득층 속에는 흑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뜻이다.

수개월간의 봉쇄로 비어 있던 거리를 시위대가 차지하는 그림은 백악관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터다. 만약 그것이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죽음, 전례 없는 바이러스의 유행 등으로 생긴 일시적인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오관할 수 있다. 바버라 랜스비 일리노이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던 인종 불평등을 다시 상기시켰다. 그리고 하필 이런 시기에 발생한 경찰의 폭력이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생각보다 분노의 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다는 뜻이다.



▲ 지난 6월 3일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 경찰 간부들이 시위대와 함께 무릎을 꿇고 있다.

가자 여행사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캐나다 동부투어 및 미 동부투어 상품

-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 핵시 서유럽 6박 7일
- 이태리 일주 7박 8일
-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 동유럽 7박 8일
- 발칸 일주 11박 12일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미서부 투어 상품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 엘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